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⑮ '쓸쓸하고 찬란하神 – 도깨비'(2016)

힘 되어 주는 이, 신적 존재로 그려내

저녁 고갯길을 넘어가는 어떤 사람 앞에 장정이 한 명 나타나 씨름을 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씨름을 하게 됐는데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다. 고개를 넘기 어려워진 이 사람은 꾀를 내어 "어, 날이 새는구나!"라고 말하고 장정이 움찔하는 틈을 타 얼른 쓰러트렸다. 그렇게 씨름에서 이기고는 장정이 정신을 차리기 전 근처에 있는 나무에 꽁꽁 묶어 두고 서둘러 고갯길을 지나갔다.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고갯길 나무 밑으로 가 보았더니 장정은 없고 피 묻은 빗자루만 있었다.

이것이 가장 한국적인 도깨비 이야기다. 도깨비라고 하면 뿔이 있는 모습에 산적처럼 거적을 두르고 방망이를 들고 다니며 "금 나와라, 뚝딱!" 하는 존재로 많이 알려졌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실은 덩치 큰 장정의 모습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뿔 달린 도깨비는 일본 영향으로 왜곡됐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 - 도깨비'에서 롱코트를 입은 훤칠한 인물로 그려지는 도깨비는 민속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려의 무신 김신(배우 공유)은 변방의 외적을 물리치고 도성으로 돌아왔지만, 역적으로 몰려 부하들과 함께 목숨을 잃는다. 시신을 수습하지 말라는 왕명으로 검이 꽂힌 채 20년 동안 버려져 있던 자리에 생전에 김신을 모시던 하인이 손자와 함께 찾아와 이제부터는 손자가 모실 것이라며 눈물을 흘린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성. "너의 백성의 염원이 널 살리는구나. 허나, 홀로 불멸을 살며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지켜보아라. 오직 도깨비 신부만이 그 검을 뽑을 것이다. 검을 뽑으면 무(無)로 돌아가 평안하리라." 그렇게 김신은 도깨비로 부활하여 938년을 살고 있다.

현대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곧 숨이 끊어질 산모가 김신의 자비로 살아나고 그때 태어난 지은탁(배우 김고은)은 도깨비 신부의 운명을 가졌다. 그래서 죽은 이들을 볼 수 있고 삼신할머니나 저승사자도 볼 수 있다. 원래는 태어나지 못할 운명이었기 때문에 저승사자의 표현대로라면 '기타 누락자'가 되어 아홉수마다 저승사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 은탁. 엄마의 죽음으로 9살에 마주친 저승사자는 삼신할머니 덕에 피했지만 이제 19살이 된 은탁은 저승사자뿐만 아니라 도깨비까지 만난다.

한번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어떤 존재이든지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는 종종 불멸의 존재를 꿈꾸기도 한다. 드라마에서 신격으로 표현되는 도깨비나 저승사자 같은 존재들이 대표적이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나 할리우드 영화 '슈퍼맨'처럼 외계에서 온 존재들이 불멸의 존재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뿐인가. 불로장생을 꿈꾸는 종교도 있고, 중국의 어느 왕은 불로불사의 약을 구하려고 이역만리까지 신하를 보냈다고도 한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도깨비 저승사자 등 불멸의 존재 꿈꿔
불교에서 세상 첫 법칙으로 '무상' 꼽아
변화 아는 삶이 변화에 걸리지 않는 삶

과연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도깨비 김신이나 저승사자처럼 현재의 모습 그대로 천 년이고 만 년이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랄 테니 결국 한평생 늙지 않겠다는 말일 것이다. 청춘의 고개를 넘고 나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늙는다'라고 표현하지만, 훨씬 어린 나이일 때는 '자란다'는 말을 쓴다. 아기의 상태로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으니, 온전한 사람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자라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늙는다는 말이나 자란다는 말이나 본질은 같다.

영원히 살고자 하면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가 늘 같은 형태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똑같은 모습으로 재생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다. 세포들은 찰나마다 멸하고 생하는데, 재생의 속도는 점점 더디어 가니 노화의 속도도 빨라진다. 삶 자체가 변화라는 말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상의 법칙 중의 첫 번째를 무상(無常)으로 꼽는다. 무상하다는 말이 워낙 한탄스럽고 애통한 상황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나쁜 어감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무상이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항상함이 없다' 즉 변화한다는 말일 뿐이다.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힘들어져도 세상 무상한 일이지만 한없이 고생하던 사람이 넉넉하게 살게 되어도 무상한 일이다. 그러니 몸이 늙는다고 한탄한 일은 아니다. 그저 변화일 뿐이다.

그럼에도 천 년 가까이 살아온 경험과 인간관계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사는 김신을 보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의 매력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김신은 자신의 재산을 현실에서 관리할 '김 서방'이 끊임없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시간 동안 모든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겪는 괴로움이 있다. 끝없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허망했으면 견디다 못해 스스로 칼을 뽑아 '무'로 돌아가려고까지 할까.

김신을 도깨비로 부활시킨 존재가 "홀로 불멸을 살며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지켜보라"고 한 것은 상이 아니라 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김신은 가슴에 꽂힌 칼을 뽑아 주어 '무'로 돌아가게 할 도깨비 신부를 긴긴 세월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쯤에서 "태어나지 말라, 죽기 괴로우니. 죽지 말라, 태어나기 괴로우니."라는 〈삼국유사〉의 유명한 구절이 떠오른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노병사(老病死)의 변화를 겪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이런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사는 것이 변화에 걸리지 않는 삶이다. 더 나아가 그 변화를 벗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일이다.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 - 도깨비'는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누군가 힘이 되어 주는 이가 있다면 그가 바로 신적인 존재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29세가 된 지은탁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선의가 바로 그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 드라마는 도깨비와 저승사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꾸는 큰 역할을 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도깨비나 저승사자를 뿔 달린 괴물이나 검은 도포에 검은 갓을 쓴 존재가 아니라, 큰 검을 차고 밤길을 걸어오는 배우 공유와 중절모에 펠트 코트를 입은 배우 이동욱을 떠올린다.

사족 하나, '도깨비'라는 말을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종 때 나온 〈석보상절(釋譜詳節)〉(1447)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불교의 천신인 '나찰'이나 '야차'를 번역한 말이라고 한다. 도깨비는 배우 공유로 변신했는데, 벽화에서 만나는 우리의 나찰이나 야차는 언제쯤 친근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표현될까?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십악 업륜 떠나 국토 안온 얻음 설해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㉙ 제3권 무의행품(無依行品, 의지함이 없는 행) 제3의 1

먼저 이 품의 요약을 말씀드리면, 부처님께 올리는 천장대범의 질문에 2종의 무의행법의 악행(惡行)을 나타내 이러한 악행 중 하나만 있어도 선정을 이룰 수가 없으며, 삼승(三乘)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출가에 대해 십종승상(十種勝想)을 지을 것을 설하며, 파계승도 청정한 외도보다는 낫고, 국왕 대신이라 할지라도 (僧의) 비리(非理)를 침해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오무간죄(五無間罪), 사근본죄(四根本罪), 방삼보죄(謗三寶罪, 삼보를 비방한 죄) (법과 사람에 대한 2종에 대해) 등의 11종을 범함은 불제자가 아니며, 타무간업(墮無間業, 무간업에 떨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파리의 질문에, 악행 비구에 대한 속인의 기가(譏呵, 꾸짖음)에 관한 십비법(十非法), 십비인(十非人)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장은 말세구제의 본원(本願)에 의해 말세의 십악륜(十惡輪)을 설하고 국왕 대신 등 악 비구를 수호하며, 도리어 정중(淨衆, 청정승가)을 뇌해(惱害)하며, 지계(持戒)의 비구를 훼매(毁罵, 욕하고 꾸짖는)하는 등 타무간업의 비법(非法)을 열거하며 파계나 무계를 막론하고 비구를 욕해(辱害, 욕보이고 해롭게 함)해서는 안 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타라(栴陀羅) 등과 같은 찰제리(귀족)·보상(輔相, 재상)·바라문·거사 등 진선(眞善)들과 대조해(상왕나찰象王羅剎 등 가사袈裟를 존중하는 인연을 들어) 파계승을 해함을 꾸짖음을 훈계하고, 찰제리, 전타라 등의 십륜 죄를 들고 있습니다.

또 진선(眞善, 착한)의 국왕·대신· 바라문·거사·장자가 불법과 비구를 보호하는 것은 자연히 십악 업륜을 떠나 국토 안온을 얻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천장 대범천의 발문(天藏 大梵天 發問):

그때 모임에 천장(天藏)이라는 대범천이 있었는데, 그는 제 십지에 머물러 보살마하살의 덕을 갖춘 이로 부처님께 예배하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공덕의 창고며 슬기의 바다시여, … 저희는 목마르게 바라나이다. 뛰어난 법의 맛과 최상의 진리의 맛을 모두가 듣기를 바라나이다."

부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천장은 "예, 세존님"하고 게송으로 여쭈었습니다.

"예리한 슬기로 선정을 닦는 이는 안주해 방일하지 않나니, 최고 진리에 머무르기 위해서입니까? 생사(生死)에 의지하기 위해서입니까?"

"주야(晝夜)로 법의 뜻을 정진해 익히고 외우나니, 번뇌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입니까? 저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용맹스레 정근해 복 짓는 것은 열반으로 나가기 위해서입니까? 생사 속에 처하면서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총명한 찰제리(귀족)가 십왕륜(十王輪)을 성취함은, 생사 속에 잠기기 위해서입니까? 불과에 오르기 위해서입니까? 잡념의 마음은 조복하기 어려워 온갖 번뇌의 원인이니, 무엇으로 깨끗이 하여 정(定), 복(福), 송(誦)의 업을 닦겠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천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이여, 너는 좋은 변재(辯才)로써 그 뜻을 묻는구나. 너는 모든 행에서 원만함과 수많은 부처님 밑에서 삼업을 닦아 바른 법을 흥성케 하고 삼보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런데 무량한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그런 깊은 뜻을 다시 나에게 묻는구나."

무의행대기별법(無依行大記別法):

"천장이여, 큰 기별법(記別法, 부처를 인가하는 예언)이 있는데, 무의행(無依行)이라 한다. 과거 모든 부처님도 유정들을 성숙시키기 위해, 생사의 법을 싫어해 떠나게 하기 위해, 삼승을 닦는 이가 빨리 원만하게 일승(一乘)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이 무의행이라는 큰 기별법을 설명하시고 거기에 주지(住持)하셨느니라. … 현재 시방 부처님도 … 미래 시방 부처님도 …."

"무의행이라는 큰 기별법을 설명하시고 거기에 안주하셨느니라. 너는 자세히 듣고 잘 명심하여라. 너를 위해 분별 해설하리라."

천장은 "예, 세존님. 듣고자 하나이다."

〈송림사 주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